

가정에서 배우는 하나님

We Learn About God in Family

마태복음 7: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5월 20일 설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동성결혼 문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롬니 후보가 요즘 동성결혼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아니면 여자끼리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했습니다. 롬니가 기다렸다는 듯 반격했습니다. 결혼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거라 했습니다. 논쟁의 결론은 된다 안 된다 둘 가운데 하나일 텐데 진행상황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미 완전히 합법화된 주가 이 커네티컷을 포함해 대여섯 개 되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동성 커플에게 보통 부부와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주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에서는 된다고 판결했는데 그걸 주민투표를 해 부결시키고 그 부결이 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지금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라 하면 같은 성씨끼리 결혼한다는 소리가 했는데 지금은 한국도 보니까 동성결혼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동성애라든지 성적지향 같은 말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지요? 너무 놀랄 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소돔 성은 남자 두 사람이 성을 방문하였다니 그 사람들을 동성 강간하겠다고 온 마을 남자가 다 모여 들었습니다. 사천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심각한 죄라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문화가, 위대한 철학자를 많이 배출한 고대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지난해 이월 그리스 신화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마치 두 사람을 합쳐 놓은 것처럼 머리는 둘, 팔다리는 넷씩 있었다 했지요? 넷이나 되는 다리로 앞뒤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빠르고 힘도 세다 보니 자부심도 강해지고 그러다가 신에게 대드는 지경까지 갔고 결국 제우스 신한테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바로 사람을 둘로 쪼개는 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반으로 쪼개 다음 가족을 모아 덮은 자리가 배꼽이라 했지요?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뜻에서 고개를 반대로 돌려놓아 찢어진 자리를 늘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둘로 갈라놓고 나니까 바빠졌다 그랬습니다. 왜요? 갈라져나간 반쪽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반쪽을 찾으려면 둘이 끌어안습니다. 옛날처럼 하나가 되겠다는 거지요. 사람이 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주 잘 설명한 옛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 남녀

그런데 그 때 제가 실제 이야기는 더 복잡하다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지는 벌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성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둘 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둘 붙은 경우는 여자, 그리고 남녀가 하나씩 붙은 경우는 남녀,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었는데 사람을 둘로 쪼개놓고 보니 하나가 줄어 이제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다음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나머지 반쪽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했지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에 남녀였던 사람, 그러니까 한쪽은 남자 다른 쪽은 여자였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남자였던 사람은 짝도 남자를 찾을 것이고 여자였던 사람은 갈라진 두 쪽이 다 여자니까 여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왜 서로 그리워하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좀 수상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다른 문화처럼 남녀차별이 심했습니다. 남자가 우월합니다. 그런데 남자 중에서 여자 짝을 찾는 사람은 옛날에는 백 퍼센트 남자가 아니고 남자 반 여자 반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백 퍼센트 남자였던 사람, 힘세고 용감 무쌍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남자 중의 남자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자를 찾는다는 말이지요? 결국 남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가장 우월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끼리 하는 동성연애가 공공연히 성행했는데 그것도 그냥 어른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게 아

나라 나이 든 어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이상한 형태로 성행했습니다. 보통 미동이라 하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도자, 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남자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멘토가 되어주는 겁니다. 보호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남자를 데리고 다니니까 난 처음부터 백 퍼센트 순수 남자였다 하는 자랑이 되겠지요? 미동 입장에서서는 훌륭한 분한테 배우고 또 앞으로 그 분의 후원으로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끔찍한 범죄지만 그 이상한 신화 때문인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미동을 데리고 다니는 일이 상류사회의 자랑거리처럼 되었습니다.

달라진 가정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 동성애 문제, 동성결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언론에도 학교 교육에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걱정입니다. 바이러스에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컴퓨터를 고장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정신을 망쳐 놓는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아예 말도 안 듣고 뜻도 모르고 살면 가장 좋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난잡해지다 보니 말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다 하면서 언급하지만 언급하는 만큼 그 말을 더 듣게 되고 그만큼 내 마음이 그 말,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성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동성결혼이나 동성연애는 그냥 보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졌다, 또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가정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집에 아버지만 둘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만 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로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입양은 할 수 있고 또 많이들 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롬니도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는 건 좋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롬니는 동성 커플은 결혼이라는 이름만 못 쓰지 다른 건 다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지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명령하면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혹 아직도 그런 가정 있으면 있다가 저 좀 만납시다. 남녀평등이 가정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아진 거지요? 전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자식 낳고 죽도록 같이 사는 거였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혼이 많아지면서 가정도 변했습니다. 이혼에 재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 번 네 번도 합니다. 아이들도 이리 쉼이 있고 저리 갈라지고 해서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힘들습니다. 남녀 사이의 역학이 변한 거나 이혼이 많아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동성결혼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가정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동성결혼이 합법이 되면 다음은 “왜 꼭 두 사람만 해야 되느냐” 하고 나올 겁니다. 셋이나 넷은 왜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지요.

못된 아버지

한 번 태어나 수십 해 살다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저들이 좋다는데 상관할 게 뭐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헤어지든 말든 나야 뒷집 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세상에 사람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만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이런들 어떻게 저런들 어떻게겠습니까?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변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무 해 전 제가 예일 신학교에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페미니즘이 참 강했습니다. 남자는 일단 싫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당연히 반대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남자가 되어 버리니까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영어로 패어런트라 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어머니 하고 부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걸 아니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자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여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체벌을 많이 안 하니 학대라 하면 대부분 성적인 학대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학생이 여럿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했습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폭군이고 이기주의자고 제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귀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 분의 사랑이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면 모르겠지만 아버지라고는 절대 못 부르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관계로 엮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남녀의 아들딸이었고 자라면서 형제자매도 생기고 또 나이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 나도 사랑을 하고 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안 아프게 지켜주고, 내가 늘 웃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주고, 내 사소한 기분을 위해서도 갖은 정성을 기울이는 분이고, 내가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또 내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분이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아버지라면 무조건 믿고 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챙겨주시고 내가 죄 지으면 슬퍼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믿고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향해 신뢰가 안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팽개치고 집 나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욕도 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자란다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시다 하고 가르친들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젊은 남녀 사이의 사랑과 같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 죽니 사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야한 이야기를 많이 담은 아가도 그래서 성경입니다. 어느 교회든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요. 이유가 뭘까 평소 그제 궁금했는데 제 집사람이 답을 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 집사람 말이 남자들은 이 찬송 불러도 별 느낌이 없을 거다 했습니다. 남자들이야 안아주기만 했지 안겨 본 일은 없으니 안기는 기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늘 여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많다, 말이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은 계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정조를 지키겠다 약속하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되십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파도, 장애인이 되어도, 치매에 걸려 나를 못 알아보아도, 죽는 날까지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아내가 나를 싫다 해도 계속 사랑해 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심지어 아내가 바람이 나 다른 남자한테 가 버려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요즘은 만나면 스펙부터 따지고 계산부터 한다고 하지요. 연애도 거래고 결혼도 돈입니다. 결혼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팻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는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재혼해도 된다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다 서약했는데 앞으로는 건강할 때나 치매를 제외한 병에 걸렸을 때는 사랑하겠다 해야 됩니까? 목사마저 이 지경이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 돈 하다 가는 건 내 알 바 아니지만, 헌신과 희생이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지요.

변하는 세상

세상에 죄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일그러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아버지도 달라지고 부부사이도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면도 있고 나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어떤 종류의 아버지신지, 옛날처럼 엄격하게 꾸중하시는 아버지인지 요즘처럼 자식들을 말도 태워주고 자식들 종노릇까지 하는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 하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데 요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도 안 하지만 아내 위해 목숨 바치는 남편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해 주기를 바라지요. 남편도 복종하는 아내 기대 안 합니다. 대신 아내를 위해 희생도 안 하지요. 부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안 되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삽니다. 그러니 귀찮게 결혼은 뭐 하러 합니까? 프랑스 새 대통령처럼 그냥 동거하면서 애 낳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또 바꾸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세상 변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옛날에는 이랬다 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엄히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꾸중은 안 하거

든요? 그래서 꾸중하시고 벌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는 옛날에는 사람 아버지도 그랬던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부사이에도 세상처럼 하나가 되는 건 무시하고 그저 평등만 강조하니,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하는 말씀도 옛날에나 가능했던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옛날 남편들처럼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될 겁니다. 주님을 순종하라 할 때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되겠지요.

사실 이게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따라 가는 거지요. 심한 교회는 동성연애까지 괜찮다 하면서 성경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남녀평등이 첫째니까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하는 구절은 성경이 아니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겠지요. 살리는 영은 사라지고 죽이는 문자만 남을 가능성이 큼니다.

말씀대로 살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바른 방법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을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문자 그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두루 살피고 앞뒤가 맞게 잘 연구해 바른 원리대로 바른 가르침대로 따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가르칠 때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아버지 모습,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를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에는 세상도 교회하고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뒤에는 정조를 지키는 게 옳은 줄 알았고 일단 결혼했으면 웬만해도 살았습니다. 결혼이야 당연히 남자, 여자가 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세상이 성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 버렸습니다. 혼전순결은 골동품이 되고 결혼한 사람도 책임이 없고 뭐고 없이 사랑만 좇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백년 전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낭만주의가 요즘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고 둘째로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배우고, 올바른 부부사이를 통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그것도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는 일이라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안 해야지요.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 이게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배우고 또 우리 생활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경험과 책임

지난날의 내 경험을 돌아보면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다 하는 사람들 많지요.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 했는데 우리 시대는 자식한테 못된 아버지,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가 겪은 아버지가 아닌 참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내고 나는 적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든 아니면 하나도 못 받았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어차피 사람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 있지요. 완벽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자란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되 자녀가 더 자라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습을 내 삶에 그대로 옮겨서 내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어려서 나한테 받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는 훈련해 전해주고 자녀는 배우고 느끼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는 일이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일이나 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은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일 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세상에는 좋은 본이 되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오바마가 뭐라 주장하든, 롬니가 뭐라 대꾸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말씀으로 중심을 꼭 잡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